

##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과 각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그리스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국민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는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고, 2,500년 전에 이미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국가적 저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오랜 우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6·25전쟁 당시 186명의 그리스 용사들이 떠나면 한국 땅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테네 올림픽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가는 그리스의 역

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혁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뛰어난 안목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각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며, 국민의 저력으로 그리스가 더 큰 발전을 이뤄갈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나라가 경제·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과 관광협정은 양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운대국인 그리스와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인 한국의 협력은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항만 현대화 사업과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간의 교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대학에 그리스 어과가 개설되었고, 이곳에서도 한국 영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의를 중시하는 국민성까지 닮은 우리 두 나라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그리스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